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 지난주 우리의 정성									
금주 미사 독서: 강후길 프란치스코, 황지혜 레지나		봉헌금: \$699 교무금: \$150									
다음주 미사 독서: 김보미 로사, 황지혜 레지나		감사헌금*: \$840 생미사: \$ 40									
금주 미사 복사: 김지원 카린		-----									
다음주 미사 복사: 권민호 바오로		합계 : \$1729(*감사헌금내역 후면표기)									
금주 미사 해설: 유지원 카타리나		Rice Bowl 모금: \$134									
다음주 미사 해설: 성인영 마리스텔라											
반	주: 조은영 베다, 황지혜 레지나, 강동현	금주 봉헌봉사: 성인영 마리스텔라									
회	계: 황성필 요한 친교실 정리: 1 구역	다음주 봉헌봉사: 유지원 카타리나									
주 일 미 사											
고 백 성 사											
성 가 대 연 습											
친교 /간식 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남성교우 기도모임		격주 금요일 (4 월 5 일 저녁 8:00,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 시 (장소: club.catholic.or.kr/thekccm 게시판 참고)									
교리 모임		미정									
골프 모임		동계 휴식기									
테니스 모임		매주 일요일 (Nielsen Tennis Stadium, 시간: 페이스북클럽 참고)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로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table><tr><td></td><td colspan="3">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또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요한 20,27) 하시는 말씀에 토마스 사도는 한마디도 못하고 꿈쩍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토마스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의심을 버리고 나서 올바르게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뜬 토마스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외칩니다. “의심을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td></tr><tr><td>성토마스의 의심</td><td colspan="3">시몬 신부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td></tr></table>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또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요한 20,27) 하시는 말씀에 토마스 사도는 한마디도 못하고 꿈쩍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토마스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의심을 버리고 나서 올바르게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뜬 토마스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외칩니다. “의심을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성토마스의 의심	시몬 신부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또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요한 20,27) 하시는 말씀에 토마스 사도는 한마디도 못하고 꿈쩍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토마스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의심을 버리고 나서 올바르게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뜬 토마스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외칩니다. “의심을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성토마스의 의심	시몬 신부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주임 신부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kccm	
사목회장 이종재 프란치스코 (608) 772-5701		Facebook 그룹 Facebook 검색에서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검색	
매디슨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Madison		이메일 kccmwi@gmail.com	
부활 제 2 주일		2013년 4월 6일	
<제 1 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5, 12-16 <제 2 독서>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1,9-11 나. 12-13. 17-19			
화답송	시편 118(117), 2-4, 22-24, 25-27 나. (◎ 1)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또는 ◎ 알렐루야.)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라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알렐루야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 19-31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원편에 복음 계속 됩니다)	
복 음			
[영성체송]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시작: 133 봉헌: 128 성체: 151 파견: 134			



보지 않고도 믿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초대 신자 공동체에서 사도들은 ‘많은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주님을 전합니다.(제 1 독서) 이는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으로 새롭게 태어났기에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새로운 삶으로, ‘부활’로 이어진 것입니다. 토마스 사도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새롭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직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19)하고 인사하시자 제자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크게 기뻐합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아서 동료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도 마다했던 것 같습니다.

적대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라자로를 살리려고 유다 땅으로 가시려 할 때, 스승을 기꺼이 따라나섰던 제자가 바로 토마스였습니다. 그는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요한 11,16)라고 말하면서 머뭇거리던 다른 제자들을 독려했습니다. 이렇게 토마스는 스승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충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스승의 비참한 죽음에 더 크게 상심하여 두문불출했던 것 같습니다.

토마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하지 않습니다. 스승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대한 남다른 충정 때문에 크게 상심한 제자를 남다른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여드레 뒤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은 토마스가 원하던 대로 해 주십니다. 그러자 토마스는 예수님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토마스에게 믿음의 걸림돌을 치워주십니다. 동시에 그의 믿음이 한층 더 굳건하게 되도록 이끌어주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요한 20,29)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고 의심을 극복한 토마스는 주님을 증거하는 데에 일생을 바칩니다.

우리 역시 토마스처럼 하느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혹은 너무 원통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느님이 정말 계신가?’하고 의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증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명한 징표를 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징표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행복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이 정말 존재하시는지, 존재하신다면 과연 선하고 전능하신 분인지 의심이 들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께, ‘죽었지만,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제 2 독서)께 간절히 청하면 좋겠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태양이 비치지 않을 적에도 태양을 믿게 하소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적에도 사랑을 믿게 하소서. 하느님이 보이지 않을 적에도 하느님을 믿게 하소서.”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 공지사항

- 4 월 사목회의가 4 월 20 일 미사 후 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안건은 5 월 봄 आय회 준비와 성당 홍보 및 선교입니다.
- 봄 आय회가 5 월 19 일에 Elver Park 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교우분들이 모두 모여서 같이 식사, 게임 그리고 운동을 야외에서 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사는 5 월 18 일 토요일 5 시에 St. Paul 성당에 있을 예정입니다.
- 감사헌금 내역 (익명 교우, 안현준 형제님, 김경만 형제님:\$700 / 주민수, 김상호, 석우경, 한승호 및 박경홍 형제님: \$140)
- 월간회계보고: 3 월 한달 간 회계 현황
총 수입: \$3504.00 {교무금(\$930)+봉헌금(\$1,225)+감사헌금(\$1,080)+기타(\$269)}
총 지출: \$4270.15 {성무활동비(\$700 성당 자체에서 드리는 \$500 제외된 비용)+
사제관유지비(\$787.14) + 성당행사(\$206.84) +
기부금(\$2,500: St. Paul / Multicultural Center)+기타(\$76.17)}
총 합계: -\$766.15
- 다음주 4 월 13 일(토요일)에는 미사 후 지하(Newman Hall)에서의 친목시간을 St.Paul 피정 관계로 1 층 사무실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 성경 통독 모임 안내>

교우 여러분, 함께 모여 주님 말씀을 들어 보아요 돌아 오는 금요일부터 격 주로 모여 성경을 통독합니다. 이번 금요일 (4 월 12 일) 모임은 홍 진국 클레멘스 덕입니다. 저녁 7 시부터 2 시간 동안 통독 합니다. 함께 주님 말씀을 들으며 은총의 시간을 나눠 보아요. 남아 노소 누구나 환영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교우님은 연락주세요(전화 : 770 0291 주소 : 5331 Oak Crest Pl.)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성가대 모집 (계속) >

성가대원과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지휘자 한영주리드비나 (lidiwinahan@gmail.com) 에게 문의하시거나, 미사전후에 지하 Music Room 에 직접 들려주셔도 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남성교우 기도모임 (계속) >

공동체의 남성교우 기도모임에 참여하세요, 격주로 모여 다함께 묵주기도 바치고 묵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음 모임은 **4 월 5 일 (금) 저녁 8 시 사제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신부님 또는 홍진국 클레멘스 (jkhong2350@yahoo.com) 형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무금>

매월 첫 주일 (4 월 6 일)은 교무금 납부의 날 입니다. 교무금 납부는 신자들의 의무인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무금 납부: 황성필 회계사목위원)